



축 산업의 경영 관리 (13)

이익 측정 방법

민 경 래
퓨리나코리아 경영지도부장

지난회에서 이익을 측정하는 3가지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바 있다. 즉 (1)매출액에 대한 순이익율, (2)자기자본에 대한 순이익율 그리고 (3)총자본에 대한 순이익율등 3가지 방법 중 총자본에 대한 순이익율이 이익측정방법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의 3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낫다는 것이지 결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으로 이익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차입자본 즉 부채에 대해서 지출한 이자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총자본에 대한 순이익율은 매출이익으로부터 모든 비용 즉 매출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등과 같은 모든 비용을 제한후에 영업의 수입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고 남은 순이익을 총자본액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므로 이 총자본순이익율에는 부채에 대한 이자도 영업의 비용으로서 이미 계산 처리된 것이므로 지출된 이자액이 이 비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채가 없이 자기자본만을 가지고 운영했을 경우와는 그비율이 다를 것이다.

그런 까닭에 기업운영의 성과인 이익측정을

하는 경우에 지난해까지 설명한 방법에 따라서 총자본 순이익율을 산출한 다음 부가적으로 차입자본에 대한 지출이자 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지출이자를 제하기 이전의 순이익을 총자본액과 비교하여 비율을 산출하여 총자본 순이익율과 비교검토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수익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타인자본인 부채가 없이 기업운영을 했을 때에는 얼마만큼의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 순이익은 총자본에 대해서 몇%의 이익율을 나타내 주는가를 보다 명백히 알수 있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12회에서 예들든 A.B.C 세농장의 예를 인용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A.B.C 세농장의 순이익은 똑같이 1년동안에 500,000원을 달성하였다. 그런데 (A)농장의 경우에는 부채가 전혀없이 자기자본금 200만원을 가지고 순이익금 50만원을 달성하였으므로 이자지출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B)농장의 경우에는 총자본금 400만원중 150만원이란 부채가 있으므로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출한 다음에 (A)농장과 똑같은 50만원의 이익을 달성했으므로 만일 (B)농장의

경우 부채가 없이 이자지출이 없었다면 순이익금이 50만원보다는 많았을 것이고 따라서 총자본금에 대한 순이익률도 보다 나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C)농장의 경우에는 총자본금은 (B)농장과 똑같이 400만원이나 그중에는 부채가 (B)농장의 2품인 300만원이나 포함되어 있으므로 (B)농장보다 2품의 이자지출을 하고나서 (B)농장과 똑같은 50만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으므로 만일 (C)농장의 경우 부채가 없었든가 또는 부채가 있더라도 (B)농장의 경우와 같이 총자본금 400만원중에 150만원이 부채였다면 (C)농장의 순이익은 (B)농장보다 높았을 것이고 또한 총자본 순이익률도 보다 높았을 것은 틀림없다.

(B)농장과 (C)농장의 총자본순이익율을 비교하면 똑같이 12.5%로서 같은 비율을 나타내 주는데 그 이유는 (B)농장이나 (C)농장의 순이익이 똑같이 50만원이고 총자본금도 똑같이 400만원이므로 총자본순이익률도 똑같이 12.5%가 될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C)농장은 (B)농장보다 많은이자를 지출하고서도 (B)농장과 같은 순이익을 달성했고 또한 같은 총자본 순이익율을 달성했으므로 결론적으로 (C)농장이 (B)농장보다 양호한 수익을 달성을 한 것이다.

이와같이 이익측정의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총자본에 대한 순이익율을 들수 있으나 그것이 완벽한 측정기준은 아니며 부수적으로 타인자본인 부채에 대하여 지출된 지출이자에 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순이익이 나오기까지의 순서를 살펴보면 전에도 설명한 바와같이 다음과 같은 경로에 따라서 순이익을 산출하게 되는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1)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산출되고
- 2) 매출총이익에서

비용(운영경비)를 빼면
매출순이익이 나오오

- 3) 매출순이익(순영업이익)에다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나

위의 설명에서 보는 바와같이 매출에서 순이익이 산출되기까지의 경로를 3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때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순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매출총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높든가 또는 매출원가가 낮아야 하겠다.

둘째로 매출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해야 하겠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영업비의 제항목(諸項目)으로부터 일반관리비의 제항목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셋째로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업외수입을 늘리고 영업외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익을 측정하는 부수적 방법으로 매출량 비율(또는 총자본회전율)이란 것이 있다.

총자본회전율 또는 매출량 비율이란 총매출액을 총자본금으로 나누어 1년동안 총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자본금이 몇회전하였는가 또는 1년동안 달성한 총매출액이 그총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된 총자본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달성하였는가 하는 비율이다. 모든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고 이윤추구를 위해서 생산을 하여 이 생산된 물품이 판매를 통하여 이익으로 달성됨으로 기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판매(매출)인 것이며 이 판매액과 총자본을 비교하여 산출되는 매출량비율(또는 총자본회전율)이 이익측정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일반적인 이익산출 공식을 매출량비율을 적용하여 도식(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표에서 알수 있드시 모든 기업의 이익을 발생하게하는 세가지 요소가 있으며 이

것 들은

매출액 총이익율	매출총이익 총매출액
-		
비용 비율	총비용액 총매출액
=		
매출순이익율	매출액순이익 총매출액
×		
매출량 비율	총매출액 총자본금
=		
총자본순이익율	순이익 총자본금

- (1) 총매출이익
- (2) 비용

(3) 매출량 등으로서 이 세가지중 어느 한가지를 개선(改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익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중에서 어느 한가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나머지 다른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여건하에서 보다 나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 기본요소간에 최대한의 연관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어떠한 사업이든 이익이란 많은 매출과 적절할 가격 그리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만일 가격과 비용에 영향을 주지않고 높은 매출량 다시 말해서 많은 판매액을 달성할 수 있다면 보다 높은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매출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보다 좋은 조건의 가격에 보다 저렴한 비용을 유지한다면 보다 높은 이익을 달성하겠고 비용을 절감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보다 많은 판매량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달성하는 것만이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같이 매출량, 가격, 그리고 비용은 서로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기업의 목적인 보다 높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상 세가지중의 어느 하나를 개선하려 할때 이것은 필연적으로 나머지 두가지에 대하여 때로는 유리하게 때로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업의 내부 또는 외부적 사정에 따라 기업체의 회계기간인 1년간의 손익계산을 하지 못하고 회계기간 도중에 손익계산을

하는 소위 중간손익계산(中間損益計算)을 하는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이익 평가를 하기 위하여 3년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평가하여야 한다.

즉 3개월간의 손익계산자료를 갖고 손익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수치를 4곱을 하여 1년치기준으로 계산한다음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6개월분의 자료를 갖고하는 경우에는 2곱을 하여 분석평가하고 7개월분을 갖고 손익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7로 나누어 12로 곱하는등 반드시 연간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분석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같이 기업운영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경영분석은 1년간 기준으로 산출하여 분석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같이 산란계농장의 경우에 육추기간이나 육성기간등과 같이 생산이 전혀 없는 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을 하는 경우에 예를들어 초생추를 입사하여 대추 과정에 이르기까지 5개월간의 농장운영을 한뒤에 손익계산을 하기 위하여 지난 5개월간의 손익계산자료를 5로 나누어 12로 곱하여 연간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와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지출(즉 비용)만 있고 수입(즉 판매)은 전혀 없었으므로 5개월분의 자료를 그대로 평가하든가 또는 5로 나누어 12로 곱해서 연간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든간에 모두 수입이 없었으므로 손익계산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산란계의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을 하든가 또는 보다 합리적인 손익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개의 계군(鷄群)이 초생추로부터 육추, 육성과정은 거쳐서 산란은 시작후후 그 계군을 폐제처리할 때까지 계군의 일생동안에 걸친 기간(통상적으로 1년반 정도) 동안에 걸쳐서 손익계산을 행한다음 그 계군의 수익달성에 대한 평가는 그 계군의 일생(즉 초생추로부터 폐제처리시까지)동안의 월수로 나누어 12개월로 곱해서 연간수치를 산출하여 분석,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계속>